

배첩장 김표영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때 타고 냄새 나고... 불교서적 제일 지지분”



10년 삭힌 풀, 무공해 특허 한지로 배첩

‘지천년견오백(紙千年絹五百)’. 종이의 수명은 1000년이고 비단의 수명은 500년이다. 종이의 우수한 내구성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751년)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신라백지목서대방광불화엄경>(755년)이 현재까지 잘 보존돼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어떤 재료를 사용해 쓰고 그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원래 상태 그대로는 보존이 불가능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김표영 배첩장(86)은 국보·보물급 지류문화재를 보존·수리하는 배첩장 기능보유자다. “70년 넘게 불교와 관련된 작품 작업 많이 했다. 경전도 수리 많이 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에 있는 상태가 험한 책들을 다 수리했다. 원본들은 엄청 상한 것들이 많아. 경전들은 그냥 두면 부수어지니까 열

람을 못해. 책도 불교 서적이 제일 지지분해. 스님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때가 제일 많이 타고 냄새가 엄청 나.” 1973년 지류문화재 수리기능사 자격증을 딴 김표영 배첩장은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를 수리해 왔다.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창덕궁 등 주요 기관과 사찰 대부분의 지류문화재는 그의 손을 거쳐 재탄생했다. 그 중에서도 경전, 괘불, 탕화 등 불교판

련 문화재만 200여 점 가까이 된다. 그는 <직지심체요절> <왕오천축국전> <월인천강지곡> 등의 영인본(影印本)을 비롯해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다반열반경소책> 및 미항사 개암사 마곡사 표충사 무량사 쌍계사 화엄사 등 수십여 사찰에 보관돼있던 괘불, 탕화를 복원했다. 김표영 배첩장의 손을 거치면 대부분 조각 조각 끊이 가거나 쪼개어져 너털너털한 것들이 새것 같이 변했다.

배첩(裱貼)은 글씨나 그림에 종이, 비단 등을 붙여 족자·액자·병풍 등을 만드는 일이다. 아름다움은 물론 실용성 및 보존성을 높여주는 전통적인 서화처리법인데 일제 때 ‘표구(表具)’라는 용어가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김표영 배첩장은 “표구가 단순히 그림이나 글씨에 종이와 비단을 붙여 미적 가치를 더하는 것이라면, 배첩은 보존성을 높여 서화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주거나 실용성을 보충하는 전통적인 서화처리법”이라고 말했다.

“책이나 글씨, 영정이나 불화 등은 그 자체만 가지고 완성품이라 할 수 없어. 거기에 배첩이 더해져야 문화적 가치를 얻게 돼. 배첩을 그림 뒤쪽에 종이 한 장 붙이는 것쯤으로 여겨 작업 과정이 단순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만큼 간단하게 끝나는 작업이 아니야.”

김표영 배첩장이 수리하는 것들은 대개 국가 지정 문화재로 그 과정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김 배첩장은 배첩에 쓰는 한지와 풀은 까다롭게 고른다. 풀은 10년 이상을 삭힌 균이 없는 풀을, 종이는 김 배첩장이 개발·특허까지 딴 무공해 한지인 백토지(白土紙)를 사용한다.

“영정이나 괘불과 비교해 고문서나 경책을 배첩하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 오래된 책을 수리 할 때는 우선 한 장 한 장 떼어서 연필로 족수를 매겨 놓고, 뜬내 낱장을 따뜻한 물에 넣지. 물먹은 종이가 풀어질 것 같지만, 한지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아. 오히려 종이에 묻은 때만 누렇게 우려낸다고. 이때 먹빛 색깔도 더 선명해져.” 김표영 배첩장이 옆에 있던 종이를 들어 보였다.

“이 종이가 백토지인데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아.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한국에서 이런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하지. 일반인들은 한지 종이가 그냥 질기면 다 좋은 줄 알아. 그건 안돼. 부드러우면서 질기고 무공해여야

돼. 화학약품을 쓰지 않은 풀과 댓물도 빨아야 하고 말야.”

때가 빠진 종이는 건조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쪽수별로 장정(裝幀)을 한다. 장정을 할 때는 다섯 번 꿰매는 오침(五針)을 한다. 이렇게 해서 누렇게 얼룩이 져거나 거뭇하게 때가 낀 책이 새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월인천강지곡> <능엄경> 등 영인본을 한지에다 인쇄를 해. <능엄경>은 문화재청에서 300부를 주문했어.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해. 하나씩 접고 제단하고 꿰매고, 제책(製冊)하지.”

그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6.7cm×6.228 원본의 규격 그대로 재현했다. 김표영 배첩장은 “<다라니경>의 원본은 불상이나 탑 안에 넣는 북장품이어서 이렇게

보유자로는 유일했던 김표영 배첩장은 60여 년간 국보·보물급 문화재 수백 여 점을 수리하다 1996년 3월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이 됐다.

김 배첩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한국 최초의 서원인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에 있는 장서들을 전부 수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배첩장의 수리작업에 대해 모두가 감탄할 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괘불로서는 1986년에 작업한 쌍계사 괘불이 기억에 남는다. 누더기 같은 괘불을 원상복구 해놓으니 사람들로부터 ‘세계 제일의 배첩장’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실력으로 인정받던 장인이지만 요즘은 일감이 없어 걱정이다.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법안만 문화재 보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때문이다. 일감이 떨어지니 자연스레 김 배첩장의 기술을 전수 받으려던 학생도 2-3명으로 줄었다.

김표영 배첩장은 표구경력 몇 년 되지 않은 업체들이 입찰을 받아 문화재 수리작업에 참여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중국 명대(明代)의 표구사(表具師)인 주가주(周嘉胄)는 표구의 이론과 실재를 담은 책 <장황지(裝潢志)>에서 “옛 작품을 다시 표구하는 일은 의사가 중병이 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명의는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술(仁術)자다. 김표영 배첩장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지키는 호법신장(護法神將)이다.

이나라 기자 oasis1983@hammail.net

<직지심체요절> <왕오천축국전> 등 수백여 점 수리

‘쌍계사 괘불’ 복원 가장 기억에 남아

작아야 돼. 옛날 스님들이 이동하면서 공부하기에도 쉬워야 해서 이렇게 생긴 거야. 두루마리처럼 권자본으로 만드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지”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일산 백석동에 위치한 김표영 배첩장의 작업실 ‘지류문화재보존연구원’은 330㎡(100평) 정도의 규모로 상당히 큰 편이었다. 괘불이 워낙 큰 작품이 많아 좁은 곳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 인사동에 영일표구사를 차려 25년, 갈현동에서 20년 정도 있다 2004년 이곳으로 옮겼다.

김표영 배첩장이 처음 배첩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14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형이 운영하는 표구사에 들어가 잔심부름을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때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라 뭐든 해야 될 때였어.”

김표영 선생은 처음 칼 가는데 2년, 풀 쭈는데 2년 세월을 보냈다. 당시 배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어서 문도 바르고 도배도 했다. 광복이 되자 그는 표구사를 그만두고 경찰학교에 들어가 3~4년 경찰생활을 하다 1953년 충북 청주에서 함께 일하던 형이 그를 서울로 데리고 왔다.

당시 수리기능사 자격증

지류문화재보존연구원 (031)908-1769



김표영 선생이 제작한 불교서적들. 맨 왼쪽 뒷줄은 석왕사비를 탁본한 <석왕사비> 경첩, <금강반야바라밀경>. 두 번째 줄은 권자본 형식의 <다라니경>과 <월인천강지곡>, 세 번째 줄은 <대방광불화엄경> <능엄경>이다.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임직원 일동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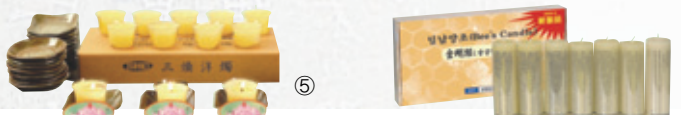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양초



- ① 밑납 아랑 연꽃 양초 7.0 f × 33cm
- ② 밑납 1호 그림 양초 5.9 f × 18cm
- ③ 약목 1호 그림 양초 5.9 f × 18cm
- ④ 약목 아랑 연꽃 양초 7.0 f × 33cm
- ⑤ 밑납 PC진 초 5.5 f × 4cm(연소시간 약 8시간)
-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 f × 18cm



한밀납 양초



- ① 밑납초 90cm × 90cm
- ② 밑납초 연봉 원기둥 7.0 f × 34cm
- ③ 밑납초 돈리레 5.6 f × 27cm
- ④ 밑납초 밑대 4.7 f × 25cm
- ⑤ 밑납초 1호 5.9 f × 18cm
- ⑥ 밑납초 2호 5.9 f × 14cm
- ⑦ 밑납초 3호 4.7 f × 13cm
- ⑧ 밑납초 4호 4.7 f × 10cm
- ⑨ 밑납초 5호 반야심경 4.7 f × 13cm
- ⑩ 밑납초 6호 반야심경 4.7 f × 13cm
- ⑪ 밑납초 7호 반야심경 5.9 f × 14cm
- ⑫ 밑납초 8호 반야심경 5.9 f × 14cm
- ⑬ 밑납초 9호 반야심경 5.9 f × 18cm
- ⑭ 밑납초 10호 반야심경 5.9 f × 18cm
- ⑮ 밑납초 11호 반야심경 5.9 f × 18cm
- ⑯ 밑납초 12호 반야심경 5.9 f × 18cm
- ⑰ 밑납초 13호 반야심경 5.9 f × 18cm
- ⑱ 밑납초 14호 반야심경 5.9 f × 18cm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 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 탕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